

네발가락도롱뇽 : 빙하기의 유존종

네발가락도롱뇽(학명: *Salamandrella keyserlingii*)은 영하 40 도나 되는 저온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. 겨울에는 언 상태로 겨울잠을 자고 살아남아 봄에 일어납니다. 이 양서류는 서쪽의 우랄산맥에서 극동의 캄차카반도에 걸친 러시아 북부에서 발견됩니다. 그러나 일본에서는 구시로 습원 일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. 이 도롱뇽은 최종빙기 동안 유라시아 대륙에서 사할린섬을 거쳐 홋카이도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